

The Builder VII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집니다.

1. 더 빌더 - 창조주

(1) 작가 그리고 작품

빌더는 세우는 자이다. 세움에는 빌더의 목적이 담겨있다. 사람, 건물 등을 세우는 것에는 건축자의 뜻이 담겨있다. 세움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창조'이다. 창조는 창조주의 뜻이 현실로 세워진 것을 말한다. 즉, 모든 창조에는 '창조주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창조의 순간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생명'이다. 모든 창조물에는 창조주의 숨결(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은 작가 자신의 작품에 영혼을 불어넣는 작업을 말한다. 그래서 작품은 '제품'과는 다르다.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명을 불어넣는 '세움'의 과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의 뱃속이다.

(2) 어머니의 뱃속

어머니의 뱃속은 사랑으로 잉태된 아이가 생명으로 형상화되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 전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다.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는 그 변화의 모든 과정을 오롯이 받아낸다. 몸의 모든 구조가 생명을 위해 변화된다. 감당할 수 없는 실재적 어려움이 있다. 어머니들은 이 엄청난 고통의 과정을 마지막 출산 전까지 경험한다. 그 과정을 통해 생명이 세워진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위대하다. 한 생명이 세워지기까지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희생한다. 그래서 어머니의 은혜는 크다.

2. 한나의 이야기

성경에 보면 출산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다. 아브라함, 한나, 모세, 예수님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한나'라는 여인이 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다. 남편 엘가나에게 두 명의 부인이 있었다. 하나는 한나이고, 나머지는 브닌나이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브닌나보다 갑절로 받은 여인이었다(삼상1:5). 그런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는 고통이 있었다.

[사무엘상 1:5-6]

5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6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갑절로 받은 여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당시 여성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다산이 축복이 되는 문화에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여성은 여성의 가치와 정체성과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나의 고통은 심각하다 볼 수 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왜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하심에도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결국 한나는 이 일로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은 고통의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상황을 먼저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도 사역 전에 광야로 가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에 가기까지 광야로 이고셨다. 모세, 다윗, 요셉, 세례요한 모두가 이와 같은 광야의 시간을 통과했다.

[사무엘상 1:10-11]

10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 하나님은 빌더에게 산모의 고통을 알게 하신다.

한나에게 있어서 오직 한 소원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다. 다른 어떤 소원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한나의 고통은 한나의 '소원'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한나는 아이를 낳을 것으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한다. 만약, 한나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여인이었다면, 생명에 대한 이와 같은 간절함이 없었을 것이다. 없기 때문에 간절한 것이다. 그 간절함이 결국 한나의 마음 안에 '순결함'의 공간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비전은 생명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안에 그 비전의 '순수함'이 명확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지속하신다. 생명에 대한 간절함을 알게 한다.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한다. 생명을 잉태하는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공간'이다.

[마태복음 5: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과 공동체는, 반드시 어머니의 모태와 같은 청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공간을 먼저 만드시는 것이다. 다른 생각이 아닌 오직 생명만을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나가 광야와 같은 시간에 한 일은 하나이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의 시간이다.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한다. 이 비밀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만을 구하게 한다.

한나처럼 소원이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가?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라. 그 시간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임을 인식하라.

(2) 비전이 잉태되는 순간 - 비전이 현실화 되는 순간

위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한나는 통과한다. 어느 날 한나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데 그 탄식의 기도가 엘리 제사장 눈에는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를 받게 한다. 마음도 답답한데 오해까지 받는 상황을 생각해보라. 엘리라는 제사장은 이미 영적으로 무뎠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한나를 오해한다. 최악의 상황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다.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일하신다. 엘리에게 한나의 상황을 털어놓게 하신다. 그리고 엘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허락을 듣는다. 놀라운 순간이다.

[사무엘상 1:16-17]

16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17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엘리라는 영적으로 무뎠어져 있는 제사장, 마음의 근심과, 원통함과, 격분됨. 기도마저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받고 있는 상황. 어느 것 하나 한나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응답하셨다.

(3)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한나의 응답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나의 임신은 사무엘을 탄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잉태이다. 부족국가에서 이제 왕권국가로 가는 다윗의 문을 여는 사람이 사무엘이다. 깨끗하고 순결한 사무엘이 충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었으며, 바로 그때 영원한 왕 예수님이 계시되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한나의 임신은 한나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다. 마찬가지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빌더가 된다는 것은, 진정한 빌더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이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빌더가 될 수 있다.*

3. 우리를 잉태하신 하나님의 모태

(1) 모태

한나의 이 모든 과정을 잉태하신 분은 사실 '하나님'이시다. 한나는 사무엘을 잉태했지만, 하나님은 한나를 잉태하셨다. 한나의 모든 고통과 시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 한나가 있고, 한나 안에 하나님이 있는 이 엄청난 영적세계의 신비는 현실이다.

[사무엘상 1:19-20]

19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고 표현되어 있다. 영어로 보면 'the LORD remembered her' 놀라운 말씀이다. 하나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기억 안에, 한나는 이미 잉태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생각 안에 우리가 있다. 그분의 기억 안에 우리가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 생각이 아니다. 내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다. 태아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언제 어머니의 고통을 알게 되는가? 어머니가 되었을 때이다. 그 존재가 되었을 때이다.

(2) 예수님, 모든 것이 명확해지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고통이 해석이 되지 않는다. 언제나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감이 죄의 가장 큰 영향력이다. 노력해도 소용없다. 그 태생적 부재감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존재적 부재감의 해결은 오직 하나이다. 그 '존재'가 되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잉태된 축복의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알게 하셨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잉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하다. 십자가는 그래서 능력이다.

(3) 다른 차원이 세워지다.

이 과정을 온전히 통과한 한나는 사무엘상 2:1-10절의 엄청난 기도를 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다. 다른 차원이 세워졌다.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아픔과 억울함을 쏟아내는 기도였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을 통과한 한나의 기도는 다른 차원이다. 더 깊어지고 넓어졌다. 하나님을 담아내는 기도였다. 가장 큰 축복이다.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귀가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

무엇을 세울 것인가? 빌더인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만을 명확하게 하자. 그분이 능력이시다.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선명해지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다. 진정한 빌더로 일어나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자.